

예·체능계 교수업적평가 : 연구 위주로는 천재 예술가를 수용 못한다

이 상 일 / 성균관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연구·교육·사회활동이라는 삼분법적 교수업적 평가제는 특정 분야의 천재성이 인정되지 않는 평범한 대학상(像)과 상식적인 교수상만 만들어낸다. - 무의미한 논문, 저술의 양산에 질린 우리가 예·체능계 교수들의 업적평가를 일반계의 틀에 맞추는 것 자체가 뒤떨어진 발상이다. 예술가는 예술작품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창작평가위원회가 따로 설치되어야 한다.

1. 전제: 예술은 대학에서 가르쳐지지 않는다

예·체능계 교수들의 교수업적평가제는 결론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예·체능계라는 이름부터 잘못되어 있다. 어떻게 예술 관련 학과들과 체육 관련 학과들이 한 계열로 묶일 수 있는가. 체육학과들이 체육대학으로 독립되어 있거나 자연과학계 대학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분야는 특별히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실기훈련이 아니면 인체 생리학적 '자연

과학' 계열에 속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예술 관련 학과들은 예능계라고 불리고 있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순수예술계열과 대중예능계로 나누어질 수 있고, 예술 관련 학과는 주로 창작 위주로 가르치고 배운다.

그런 의미에서 예·체능계 교수 업적을 일반 교수들과 같은 기준과 척도로 묶어 놓은 것은, 특히 예술 관련 학과 교수들의 업적을 평가하지 않겠다는 잠재적 의도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의 문화환경이나 교육제도는 '선비정신'을 내세운다. 그러나 창작을 위

주로 하는 예술 행위를 저급한 표현으로 천시해 온 과거를 돌이켜 보면, 대학 교수업적평가에서도 예술 계열을 낮추어 보려는 잠재의식이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체로 대학사회의 예술 관련 학과 설치 는 우리나라에서 늦게 이루어졌고, 지금도 대학 자체에서 학과 인식의 비중도 낮다. 문·사·철(文·史·哲)로 요약되는 인문과학 계열의 문학이 겨우 대의를 세워 주고는 있지만, 시인이나 소설가의 교수 임용이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보면 음악가나 미술가, 무용가, 연극인, 배우들의 교수 임용이 진정한 대학인의 구성 요소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저변의 사정을 알게 될 것이다.

대학에서는 예술을 배우기 어렵다. 대학은 진리의 전당이라고 한다. 따라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은 대학의 진리 탐구 및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학의 예술 관련 학과는 그것이 연구 탐색의 실험장이 아닌 한 서자 취급받기 일쑤이며 대학의 미운 오리새끼 취급당하기 알맞다.

예술은 타고난 천부의 재능과 관련된다. 지식으로 가르쳐서 완성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음악, 미술, 무용의 역사와 이론 등 체계화되는 지식은 대학 강의실에서 습득되겠지만, 예술 그 자체가 학술적으로 수련되는 경우는 없는 것이다.

예술을 기량면에서 심화시켜 주는 전문학교 수련 과정은 예술을 연마하는 좋은 훈련 실습장이다. 그러나 예술은 커리큘럼으로 편성된 대학 과정으로 이수되지 않는다.

물론 문과대학, 미술대학, 음악대학이 실체로 존재하고 예술대학이 예술 관련 학과들을 묶어 놓고 있으므로 대학에서 예술이 전수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러나 문과대

학에서 시나 소설, 희곡의 작법을 배우고 음악대학이나 미술대학에서 타고난 재능을 지식이나 논리로 잡아먹어가며 실기를 배우는 과정이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우리의 대학제도가 예술의 수련을 위해서는 알맞은 제도가 아니라고 믿고 있다. 예술이 공부로, 더 나아가 연구로 되는 학문이 아닌데도 대학 강의실에서 예술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의 시스템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런 예술 관련 학과 소속 교수들의 업적평가가 일반적인 논문 편수라든지 저서 책수로 결정되며, 소속 학생들의 성적이 배운 지식의 시험성적으로 우등생 평가가 매겨지고, 이를 토대로 예술 창작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현행 제도는 예술 관련 학과의 교수나 학생들을 일반 교수나 학생 나뉠음으로 다루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2. 사례 : 짜깁기식 편제로 평가가 가름난다

예·체능계가 우선 분리되어야 한다. 예술 관련 학과와 체육학과 등을 함께 묶어 예·체능계로 명명하는 대학사회는 아마 대한민국 교육행정 아래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당연히 예술 관련 학과의 교수업적평가와 체육학과 교수의 업적평가는 달라져야 한다. 우선 체육학과 교수들의 평가 기준이 기록 경신이나 기록 향상을 위한 훈련과 체력 단련을 위한 생리학적·심리학적인 그리고 사회학적 분석과 실험 및 이론에 근거한 과학적 접근을 기본으로 한다면, 예술 관련 분야 교수의 업적 평가는 창작활동과 그 결

과에 대한 반응이 위주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예술 창작 분야에서 역사 연구와 예술철학, 이론·미학적 이론체계가 인문과학에 속한다면 창작 위주의 실기적 예술 행위에 대한 교수업적평가는 '연구' 업적평가라기 보다는 '창작' 업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 예술 관련 학과 교수들의 활동영역에서 귀착될 당연한 문제이다.

필자가 올해 5월에 기고한 『무용예술』지의 한 칼럼에서 주장한 논지의 근거가 바로 예술 관련 학과 교수들의 업적평가에 대한 모순과 그 시정이었다.

다음 사례는 올해 모 대학 예술 관련 학과의 교수 임용 과정에서 발생한 업적평가제 평점 매김의 불합리한 기준 시비이다. 후보자 두 사람의 평점은 거의 비슷하였다. 창작·공연 활동은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 심사위원들이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충 거의 비슷한 점수로 비교적 후하게 매겨지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논문과 저서(술), 그 저서(술) 출판도 편저 및 번역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글쓰기와 책 묶음이 초점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업적평가에서 논문 평가는 내용, 곧 질의 문제가 아니라 편수가 문제이다. 박사논문이 2백 점, 일반논문이 1백 점으로 배정되어 있는 것이 우리 대학사회의 일반적 관행이다. 그래서 평가에서 우위에 서기 위하여 박사과정 이수와 박사학위 취득이 예술 관련 학과에서도 유행이다시피 되어 있다. 사대주의적 근성의 발로이기도 하겠지만, 논문 평가가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져 매겨지는 경우도 있다. 학부만 졸업하고(혹은 대학을 다니지 않았더라도) 창작 경력으로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예술 분야의 특수성은

아예 무시된 채 석사학위 취득, 그리고 실무경력보다 박사학위 논문이 평점에서 두드러지게 유리하다는 것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그리고 인문과학 분야의 평점 기준이 그대로 예·체능계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술 관련 학과에서는 그 분야에서 뛰어난 예술가의 창작 활동이 평점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체육학과의 실기 부문에서는 경력상 기록이 뛰어난 체육인이 그 전문 분야에 초빙되는 것이 옳다.

공정하고 엄정해야 할 예술 분야의 창작 평가는 경향에 따라 혹은 예술 장르에 따라 심사위원들이 그들의 전문분야가 아님을 핑계로 대충 넘어가고, 논문·저술(저서/편저/번역) 분야에서 업정과 공정을 내건 심사위원회는 논문이나 저술의 질적 평가 또한 전문가가 아니므로 눈감아 버린다. 그리고서는 양적 평가, 곧 그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과 수준은 고려함이 없이 편수에 의하여 평가 점수를 매기게 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다.

그렇게 하여 전기한 사례로 돌아가보면, A, B 두 후보의 예술 활동, 곧 공연 업적은 큰 차이가 없고 논문 편수 두어 편도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저술 활동 부문에서 A는 편저가 하나 더 있고, B는 번역 한 권이 있는데 이것이 평점을 갈라놓았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의 연구업적에 번역 활동이 들어가지 않고, 그 대신 편저는 하나의 저서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편저라는 이름으로 짜깁기식 저서가 연구 업적으로 둔갑한다. 제대로 된 번역 업적도 되지 않는, 몇 군데 외국 저명 저서에 서의 무단 차용이 표절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뿔뿔히 나와 제대로 번역도 안 된 상태에

서 편저의 일부를 차지한다. 그렇게 몇몇 대가의 논문이나 저서의 일부가 짜깁기식으로 한 권의 책이 되어 묶이게 되면, 그것은 표절 시비에 휘말리게 마련이다.

일찍이 무용학과들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실기 교수가 이론까지 담당하면서 실기보다 이론 쪽에 무게를 실기 시작한 것은 실기 교수로서의 예·체능 교수가 체력적으로 달리는 상황에서 연배와 권위로 이론 과목을 맡게 된 배경 때문이다.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된 교재 하나 변변히 없던 예·체능계 교수들이 이중번역이나 공역 혹은 편저 형식으로 저서 경력을 쌓아 나간 연구활동이 고약한 형태로 정착된 경우도 많다.

예술 창작, 그리고 그것을 위한 실기훈련 등이 예술활동이자 업적평가 기준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지 않으면 위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논문 편수, 내용 없는 저술이 어엿하게 업적평가의 대상이 되면서 그 평가 점수에 승복할 수 없는 경쟁상대의 고발이 제기될 수도 있다. 앞의 A, B 두 후보의 경우 A의 업적이 편저 한 권으로 우위에 오르다가 그 편저가 오히려 짜깁기식 표절 시비에 물리게 되면 제대로 된 번역서 한 권이 업적평가를 뒤집게 된다. 그리하여 급기야 예술 관련 학과의 예술활동과 상관 없는 교수업적평가가 교수 임용 과정이나 승급에 실제로 크게 작용하기 마련이다.

3. 현황:작품으로 평가 못받고 저질만 양산되다

대학교수의 업적평가가 기본적으로 연구, 교육, 그리고 사회봉사 활동으로 매겨지는

것이 우리 교육부의 지침이자 대학 당국의 기준이다. 이 중 연구 영역의 교수업적평가에서 몇 대학의 연구저작물, 연구논문과 창작 발표 부문의 평점을 살펴보겠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995년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자료로 발간한 『대학 교육개혁 사례집』에 보면 모 대학의 경우 연구실적평가의 합리화 계획('96년 현재 미시행)에 미술·디자인계의 논문(전문학술지) 평점이 4.0, 대학학술지 게재 2.0~3.0점, 평론 1.0으로 나와 있고 저술은 일반계와 동일하게 나와 있다. 논문 한 편의 평점이 4.0이라면 국외 개인전 전시·출품 때 받는 평점 3.0~4.0(국내 2.0~4.0)보다 확실히 높은 평점이다. 그것도 기존 평가 기준에 비하면 상향 적용된 것이라고 한다.

또 다른 대학의 교수업적 평정 기준을 살펴보면 연구저작물의 경우 국외 전문 학술저작물 평점이 300점, 국내 저작물이 200점이고 문학 저술의 소설집, 시집, 수필집 간행이 200점, 문예지 발표가 100점이다. 단독 연구논문은 150 내지 100점으로 평가하면서 박사학위 논문에는 200점이 주어진다.

그런데 음악 부문의 각종 발표에 대한 평정 기준을 보면 작곡 발표, 독창회, 오페라 주연, 예술 총감독, 오페라 연출, 기악 독주회, 교향악단 지휘 등이 100점으로서, 논문 한 편의 평가 점수와 맞먹는다는 사실은 더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미술 분야의 미술전 초대 단독출품 100점, 개인전 200(대)~100(소)점, 의상 국외 단독발표 150점, 공동발표 100점, 국내 발표 100점 역시 논문 한 편 발표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무용의 경우 해외발표시 안무·예술감독·연출·주연·단독발표가 150점, 국내 발표시 100점

로 평가된다. 그에 비하여 체육의 경우 국제 경기 출전선수 지도에 150점, 전국대회 입상지도(우승)에 100점이 주어진다.

이러한 평정 기준에서 보듯이, 예·체능계의 창작 발표에 대한 배점은 연구저작물에 비해 1/3~1/2 수준으로 매겨져 있다. 이는 예·체능학과 교수들이 예술 활동 자체나 경기력 향상 자체의 평가에 신경을 쓰기보다 일반 대학교수들의 연구 활동 같은 업적 쌓기 추종으로 방향을 잘못 잡아 나가게 하고 있다. 논문 집필, 저서 출판, 편저 제작, 번역에 급급하여 감히 평가대상이 되기 어려운 저질 논문과 저술의 편수로 업적 향상을 도모하는 추세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예·체능계 교수가 창작이나 기록 경신의 지도에 몸을 바치기보다 필드가 다른 논문 작성에 쫓기는 것은 그들 원래의 위상에서 벗어난다. 방학 때마다 예술 관련 학과 교수의 해외 나들이가 많아지고 예술감독이라는 칭호가 범람하는 것도 업적평가와 관련이 있다. 예·체능계 교수들이 박사학위를 받기 위하여 연구실에 틀어박히기 전에 그들은 공연장이나 경기장에서 밤을 밝히려 할 것이다.

창작 작업에 몰두해야 할 그들이 연구업적의 노예가 된다. 예술을 만드는 창조작업에 몰두하기 전에 그들은 교수업적평가제라는 제도에 묶여 창작을 저만치 밀어붙여 놓고 창작과 상관 없는 관찰·실험·분석 작업에 몰두해야 하는 것이다.

관찰·실험·분석은 과학자가 수행해야 할 작업이다. 그 결과로 그들은 논문을 쓰고 발표하고 그 평가를 객관적으로 받는다.

그러나 시인이면 좋은 시를 써야 한다. 미술가라면 작품을 구상하고 그러서 전시회

를 통해 그의 업적을 세상에 물어야 한다. 무용가나 음악가나 배우도 그들 장르에서 작품으로써 평가를 얻어 내어야 한다. 그들은 논문을 쓰고 있을 시간이 없다. 작품 창작에 쏟는 시간 때문에 박사학위 과정에 뺄 시간도 없는 것이다.

참다운 예술가라면 그의 예술작품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의 박사학위 따위는 빛바랜 헌 종이짝에 지나지 못한다. 논문 발표는 여기(餘技)가 아니면 흥내내기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소설가 교수에게 논문 집필과 저술 활동을 강요한다. 소설가 같은 문인은 그래도 글쓰는 재능이 있으니, 해야 한다면 논문 형식을 꾸며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화가와 무용가와 음악가와 연극자가 논문 집필과 저술 활동으로 실기를 연마하고 창작에 몰두해야 할 시간을 예술창작 이외의 허드렛일에 뺄 수 있는가.

교육 당국이 교수업적평가제도를 마련해 놓고 대학 당국이 그에 준하여 교수의 업적을 평가하게 되니까 자연과학의 공과 계열 교수들과 이과 계열 교수들이 똑같은 규정으로 논문 집필 편수와 해외·국내 전문지 발표로 평점을 올리고 편저·저술 활동으로 평점을 높인다. 번역은 대개의 경우 업적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비슷한 평가방법으로 사회과학 계열의 교수들과 인문과학 계열의 교수들이 업적평가의 체에 걸려진다.

사회과학 계열의 교수들도 엄밀히 말하면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평가의 기준이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인문과학 계열은 문·사·철의 인문계와 영·독·불의 어문계가 평가 기준의 척도에서 차이가 나야 옳다.

그러나 그런 미묘한 차이는 무시되고 논문 편수, 저술 활동이 주요 평가 기준이 되어 버린 지 오래되었다. 편저와 번역은 무시되거나 연구업적으로는 하위 개념에 속하는 활동 영역이다.

그런 기준이 그대로 예·체능계 교수업적 평가제에 도입되면 당연히 모순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시인이나 작가나 예술가라는 이름에 교수직이라는 명예(?)가 덧붙여지고 거기에다 박사 칭호까지 넘보아야 한다.

예·체능계의 작품과 기록, 전시와 공연에다 연구 저술의 논문집·저서 발간까지 겸하여 예술가들은 예술가이기 전에 교수가 본업이 되고 박사 행세가 주업이 된다.

예술가들이 박사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교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도 없다. 그러나 교수가 할 일과 예술가가 할 일이 따로 있다.

교수들이 할 일은 기본적으로 연구이다. 그것이 이제는 가르치는 교육행위로 탈바꿈되었다. 또한 교수의 품위 향상을 위해서 사회봉사가 첨가된다. 그런 세 가지 평점에 따라서 한 교수의 유능·무능이 판가름난다.

어떤 교수는 연구를 통해 높은 평점을 받아 대학과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지만, 대인관계가 좋지 않아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사회봉사에서 평점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가르치는 데 재능이 있는 교수가 반드시 연구나 사회활동에 능하라는 법도 없다. 사교술과 정치 로비 능력이 있고 사회활동이 뛰어난 교수라고 해서 반드시 학생을 잘 가르치거나 뛰어난 연구업적을 내지는 않는다.

연구업적으로 학계의 기여도가 높고 학생을 잘 가르치면서, 사회적으로는 대인 기피

중세를 보이는 괴짜 교수도 실제로 있다. 학생을 잘 가르치지만 교수방법이나 그 내용이 진부하다거나 평범한 경우도 없으란 법이 없다.

결국은 연구·교육·사회활동이라는 삼분법이 제도적으로 아주 평범하고 상식적인 대학교수 상(像)을 만들어낸다. 연구에서 천재적인 교수도 있고 가르치는 데 신명이나는 교수도 있으며 대외 활동으로 학교를 빛나게 해주는 교수도 있다.

한 분야에서 특출한 교수업적평가제는 지금 우리 사회 환경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다. 세 가지 기능 직책의 만점 평점이 아니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교수들이 있어야만 특정 분야에서의 천재성이 인정될 수 있고, 그런 천재들의 연구실이 모여 있는 대학이 가장 특징있는 대학 상(像)을 수립해 나갈 수 있음에도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꿈이다. 아무도 그런 꿈을 꿀 수가 없다. 당국이 지침을 내어 놓았고 대학이 문제가 생길 법하고 까다롭고 괴짜인 그런 천재 교수들이 발호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졸망졸망하고 비슷비슷하고 크게 어긋나지 않는 대학교수 상(像)을 제도적으로 양산하기 위한 장치로서 교수업적평가제가 활용되고 있다.

자연과학 계열에는, 사회과학 계열에는, 그리고 인문과학 계열에는 그래도 논문 편수, 저서, 편저, 번역으로 업적 평점이 나올 수도 있다. 질과 내용은 무시해 버리고 말이다.

그러나 시인이, 미술가가, 무용가가, 성악가가 자기의 활동 영역과 상관 없는 집필행위로 점수를 딸 수 있는가. 따 봤자, 높은 평점을 받아 보았자, 자기의 예술적 작품 평가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작품 창작과

상관 없는 논문 작성, 짜깁기 저서·편저 작성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런 논문·저서가 논문으로서, 저서로서 무슨 가치가 있는가.

시 한 편, 작품 하나에 몇 점씩이라는 평가 기준에 맞추어 만들어지는 작품 창작이 예술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것은 편수 채우기에 급급한 교수들의 논문, 저서 수가 실제로 학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고 쓰레기 논문, 저술로서 집필자 교수의 사적인 자위행위로 끝나버리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는 3공 시절 교수 길들이기 정책과 실험대학 연습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였고, 그 가운데 논문 저술활동과 관련된 연구비 당근 챙기기로 양산된, 내용 없는 저질의 글쓰기에 이미 지쳐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무의미한 논문, 저술의 양산에 대하여 성찰의 시선을 주게 된 마당에 예·체능계 교수들의 업적평가를 일반계 교수들의 틀에 맞춘다는 것은 천재들을 범재로 바꾼 '고교 평준화' 시책보다 확실히 뒤떨어진 발상처럼 보인다.

예술 관련 학과의 교수들을 그들이 관련된 예술 영역에서 자유롭게 창작하도록 풀어 주어야 한다. 예술가는 예술작품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4. 시정과 발전방향:공적인 창작 평가기구가 필요하다

예·체능계 교수들의 교수업적평가제는 결론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예·체능계 자체가 예술 관련 학과 계열로 분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술 관련 학과 교수들의 업적평가는 창작·실기 부문과 이론·연구 부문으로

나누어져야 한다. 예술철학(미학)의 이론 분야와 역사적 고찰은 자연스럽게 문·사·철의 인문학 계열의 평가제도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해방 50년의 대학제도를 냉철하게 재검토하는 의식의 전환이 선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것도 달라질 수 없다. 예·체능계 교수업적평가제라는 것 자체가 의식의 전환 없이 그냥 일반계 교수업적평가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시킨 것이며,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은 범용한 예·체능계 교수들만 양산하게 된 것이다.

천재를 수용할 수 없는 대학상, 천재 예술가를 연구교수, 그것도 내실있는 연구교수로 변모시킬 수도 없으면서 제도적인 논문, 저서의 평가 점수로 묶어 두려는 대학 교육 제도는 예술가에 대한 인식이 빈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술 관련 학과의 교수업적평가는 창작·실기에 관한 한 공연, 전시, 발표회 등에 평점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규모나 횟수보다 내용적인 질적 평가 위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교육부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산하에 창작평가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 당국이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심사위원회도 그 운영의 묘를 살리면 못할 것이 없으나, 오늘날 우리 대학이 자체 발간하는 논문집 게재 연구논문들에 대해서조차 평점을 낮추는 까닭은 각 대학이 그만큼 자체적인 심의제도에 대하여 신뢰를 두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일반계 교수업적평가제가 논문 게재 심사 제도를 도입한 각 학회 기관지에 실린 논문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학회 쪽으로 떠미

는 까닭은 그만큼 책임회피이기도 하지만, 각 대학 심의기구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보다 행정적 절차의 요식 행위로 끝내려는 잠재의식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업적평가위원회 위원들이 돌아가며 위촉되는 형식을 취하여 예술 관련 학과 교수의 업적을 평가하는 자리에는 전문가, 예컨대 장르별 교수와 평론가들이 실제로 작품의 발표 현장에 임하도록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 예술학과 교수들은 사전에 작품 발표를 신고하는 제도를 채택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대학의 논문 심의를 통해 같은 주제에 대한 이중적인 정력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당국의 거름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적어도 석·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비슷한 테마를 걸러내어 학위 논문으로 적당하다, 그렇지 않다는 판별하는 것은 지도교수 이전에 상급기관에서 먼저 유사한 제목과 주제 등에 대한 판가름을 내린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도교수가 수납하면 이미 발표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비슷한 주제의 논문이 작성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제도적 맹점에 대한 거름 장치는 예술 관련 교수의 업적평가 사전 심의 신청에서 비슷한 주제, 진부한 테마, 표절 위험이 있는 작품 발표를 차단할 수 있고 방향 전환을 유도할 수도 있다.

창작 발표를 일 년에 논문 한 편씩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예술 활동은 몇 년을 침묵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침묵 가운데 위대한 작가는 일반교수들보다 몇 배나 더 힘든 사색과 모색을 거듭한다. 따라서 일 년에 논문 한 편 발표하는 식으로 교수업적평가를 한다면, 우수하고 재능있는

예술가도 그 책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창작 발표를 서둘러야 하고 작품의 성숙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여 미숙하고 저질적인 논문 양산과, 마찬가지로 미숙하고 저질적인 작품만 양산될 위험이 생긴다.

나는 예술 관련 학과 교수들의 창작 평가만은 그런 속결주의, 양산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좋은 시 한 편, 문학사에 남을 만한 소설이나 희곡 한 편, 고전이 될 수 있는 창작성들이 일 년에 한 편씩 발표되는 논문처럼 만들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예술가들의 생애가 편안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회심의 작품 하나 만들어내기 위하여 일생을 건다. 그런 작품 하나로 그들은 민족의 시인, 무용가, 배우, 화가, 음악가로 각광받으며 세계의 예술가가 된다. 어쩌면 예술가는 천 명, 만 명의 연구교수보다 국위를 떨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대학교수 업적평가제로 천재적인 예술가를 질식시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들의 업적을 일반계 교수업적평가제로 다스릴 수 없는 까닭은 '균제일학'인 천재를 우리가 놓치고 있거나 앎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뛰어난 예술가가 좋은 학교 출신에다 박사학위를 소지했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일반계 교수들이 연구실에서 그들의 경력을 쌓고 있는 동안 그들은 방향과 수련의 세월을 보내며 창작을 위한 정진의 길에서 일상생활의 질서를 무시하며 살았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대학이라는 일상의 울타리에서 보통의 교수가 되었을 때 그들의 천재성은 누가 보전해 줄 것인가.

그러므로 예술 관련 학과 교수의 교수업적평가는 그들의 창작 활동 위주로 평가하

며, 그 평가는 예술작품을 평가할 수 있는 독립위원회 같은 기구가 주관하여야 한다. 평가위원은 장르별 전문가로 구성하되, 그 예술가의 작품 하나가 높이 평가될 때는 논문 한두 편으로 견주어질 것이 아니라 작품 하나로 평생이 보장될 정도의 평점도 무방하다.

예술가가 예술 활동을 하지 못할 때 그는 가장 불행하다. 따라서 평가는 그의 긴 침묵 다음에 이루어져야 한다. 마침내 그가 예술가이기를 그만 두었을 때, 그는 평범한 교수로 돌아와 예술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그리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술 관련 학과 교수들, 그들이 예술가라

면 교수업적평가 따위는 안중에도 없을 것이다. 우리도 그들에게 보다 관대해야 하는 것이다. ■

이상일/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와 등 대학원을 졸업하고 스위스 취리히 대학에서 수학한 후,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성균관대 독어독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여가문화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국제극예술협회 상임위원과 한국독어독문학회, 연극학회, 브레히트학회, 성균관대 도서관장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 『한국사상의 원류』, 『한국인의 굿과 놀이』, 『축제와 마당극』 등이 있고, 논문으로 "니힐리즘의 전개", "굿의 연극적 기능", "민간심상의 형성력", "브레히트론" 외 다수를 발표했다.

大學教育

좋은 독자는
좋은 책을 만든다고 합니다.

본지를 더욱 일찬 내용으로 꾸며줄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교육관련 논설, 대학에서의 연구·교수 및 사회봉사 활동 중에서 대학사회에 시사할 수 있는 주제 논의, 본지에 게재된 글에 대한 반론 등

■ 보낼 곳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우)150-74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보자료부
『대학교육』 편집실
(전화 : 783-3891, 780-7942
팩스 : 780-8311)

■ 해당 칼럼 및 분량

- 논단 (200자 원고지 50장 안팎)
- 대학담론 (25장 안팎의 수상)
- 나의 수업
(30장 안팎의 수업관 및 수업방법 소개)
- 대학은 지금
(30장 안팎의 대학 관리운영 혁신사례 등)

■ 참고사항

- 원고는 편집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며, 제출된 원고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필요한 경우, 편집자문위원회는 집필자와 협의하여 편집형식에 맞게 원고를 수정·보완할 수 있습니다.